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판타지 액션 사극 봇물 “황당하지만 매력적”

장풍·공중부양 등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눈길

안방극장이 무협 액션에 빠져들었다. 단 순히 와이어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액션을 넘어 ‘황당무계’가 그 자체로 매력적인 흥미로운 무공들이다.

최근 막을 내린 MBC ‘아랑사또전’에서는 저승사자(한정수 분)의 각종 무공이 펼쳐졌다. 또 이승을 떠도는 원귀들도 그 뜻밖의 공중 공력을 뽐내며 저승사자와 무협대결을 펼쳤다.

반면 최고 무공을 자랑하는 저승사자에게도 뽐지 못하는 ‘장막’이 등장하기도 했고 이승과 원혼들의 세상 사이에는 ‘결계’가 쳐져기도 했다.

SBS 월화극 ‘신의’에는 네 가지 무공이 등장한다. 주인공 최영(이민호)이 온정심을 집중해 구사하는 뇌공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화수인(신은경)의 화공, 덕성부원군 기철(유오성)이 상대를 얼어붙게 하는 빙공,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고 대금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천음자(성훈)의 음공이다.

이들 무공에는 위험도 따른다. 화공을 쓰는 화수인에게 기를 뒤집어 씌워놓으면 자칫 자기 자신이 타버릴 수 있어 화공을 쓰지 못하고, 천음자가 귀에 힘을 집중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쇠소리 등으로 방해하면 그의 고막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 빙공을 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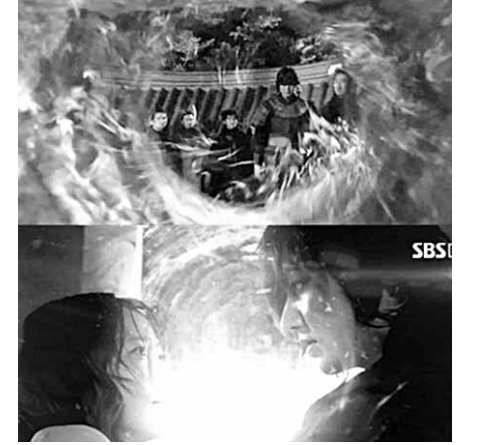
하는 기철은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팔이 마비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최영 역시 아무때나 뇌공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몸이 힘들 때 구사했다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11월 시작하는 KBS 2TV ‘전유치’는 도사들의 이야기다. 고전소설 ‘전유치전’을 바탕으로 한 퓨전 무협사극. 친구의 배신으로 아버지처럼 여겼던 홍길동과 사랑한 여인을 잃은 율도국 도사 전유치(차태현)가 복수에 나선 이야기다. 공중부양은 기본이고 장풍과 각종 도술이 그려질 예정이다.

SBS 수목극 ‘대풍수’에서는 풍수사와 무녀들이 등장해 무협지의 세계로 안내한다. 마법과 주술은 기본이고, 땅의 기운을 평가하며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과정에 도사들이 등장해 신비로운 예언을 한다.

새로운 볼거리를 주려는 제작진의 시도는 현실적으로 제작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하느니보다 못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신의’는 제작비가 부족해서 야심 차게 기획했던 무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30일 종영을 맞게 됐다. 화수인이 화공을 구사할 때 근거리 일대가 전부 화염에 휩싸여야 하는데 그럴만한 돈도, 시간도 없는 바람에 화수인이 화공을 구사하는 장면이 뒤로 가면서 아예 없어져 버린 것.

‘대풍수’도 풍수사와 무녀들을 통해 판타지 분위기를 강조했지만 초반 시청률이 저



<신의>



<대풍수>

조하다. 과거 비슷한 분위기를 냈던 ‘자명고’는 ‘이국적인 분위기’로만 기억되고 있다. 결국 무협액션의 성공 여부는 CG와 스토리의 적절한 조화라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 평가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음 9월 15일 癸亥)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I'll give it to you on Sunday'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and a Japanese transl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趁热打鐵' with Chinese and English text and a Japanese translation.